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MEDICAL GI-GONG
Vol.11. No.1. 2009.

東醫寶鑑을 통한 食積에 대한 고찰

노주희* · 이재흥* · 장명준* · 배재룡*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A study on *Sik-jeok* in *Dong-ui-bo-gam*

Ju-hee Roh* · Jae-heung Lee* · Myeong-jun Jang* · Jae-ryong Bae*

*Dep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1. The concept about *Jeok-chwiu*(積聚) has been around since before "Hwangje-Naegyeong". Since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Sik-jeok*(食積) was made mention of specifically. In "*Yu-gyeong*(類經)", it is said that *Sik-jeok* is a combination of our body fluid and blood by bad eating and sleeping habits.

· Received : 27 November 2009 · Revised : 10 Desember 2009 · Accepted : 24 Desember 2009

correspondence to : 노주희(Ju-hee Roh)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541-3 하성한방병원

Tel : 031-999-6666

Fax : 031-999-6600

E-mail : rohjuhee@hanmail.net

2. In the narrow sense Sik-jeok is indigestion and broadly it is inappropriately stagnant fluids in our body.

3. If studying on Sik-jeok in Dong-ui-bo-gam

- 1) It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in the epigastric region and between the skin and fascia.
- 2) The cause of Sik-jeok is indigestion, inappropriate temperature and weak stomach.
- 3) Symptoms of Sik-jeok are very diverse such as sick ascension, nausea, abdominal pain, headache, fever, etc. The right pulse is big and stressful.
- 4) Various symptoms related to digestive, respiratory, circulatory and reproductive system are represented by Sik-jeok.
 - Contemporarily women uterine or ovarian disease and back pain are mostly caused by Sik-jeok
- 5) Pediatric disease are mostly caused by Sik-jeok.
- 6) Treatment of Sik-jeok is light eating and if it is serious, you have to induce vomiting or diarrhea.
 - Commonly used drugs are digestive medicine and invigorative medicine
- 7) To prevent Sik-jeok, you should forbid to eat until you are satisfied and wear warm clothes and continue to do spleen and genital do-in-beop

keyword : Hwangje-Naegyong, Sik-jeok, Dong-ui-bo-gam

I . 緒 論

현대사회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의학적으로 食積이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食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분명치 않다. 현대인들에게 ‘食積’이라고 하면 단순히 체한 것인가, 약한 체기가 반복된 것인가, 숙변인가,

위치는 장관 내에 있는 것인가, 장관 밖에 있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食積의 위치, 食積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을 명확히 하고자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역대 문헌에 나타난 ‘食積’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東醫寶鑑은 역대 문헌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한의학 서적이므로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역대 문헌을 고찰해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食積에 대한 개념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本 論

1. 食積의 명칭과 유래

黃帝內經에는 食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를 포괄하는 積에 대한 언급은 있다.

積을 內經이후의 文獻을 통해 보면, 內經에서는 積, 積聚¹⁾, 積氣²⁾,

積水³⁾, 積筋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積과 聚의 개념이 內經이전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難經에서는 『五十五難』과 『五十六難』에서 內經에는 언급이 없는 積과 聚의 차이점과, 五積에 대한 언급이 있다⁵⁾. 이중에 五積에 대해선 內經에 그 용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心積, 肝積, 肺積의 별칭에 해당되는 伏梁, 肥氣, 息積의 용어가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이로 보아 五積에 대한 개념

何以候之.“

2) 洪元植 譯 :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72 ; 《素問·五臟生成篇》에서 “有積氣在中…”

3) 上揭書, p.532 ; 《素問·解精微論》에 “水宗者 積水也.”

4)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408 ; 《靈樞·五味論》에 “陰者 積筋之所宗也.”

5) 扁雀 著 滑壽 注 : 難經本意,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 p.492 ; 《難經·五十五難》에서는 “五十五難曰, 病有積有聚, 何以別之. 然, 積者, 陰氣也, 聚者, 陽氣也. …”라하여 積과 聚에 대한 구별 및 차이점을 서술하였고, 『五十六難』에서는 “五十六難曰, 五藏之積, 各有名乎. 以何月何日得之. …”라 하여 五積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6) 洪元植 譯 : 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280, p.241, ; 《素問·奇病論篇》에 “病名曰 息積 此不妨於食”, 《素問·腹中論》에 “病名伏梁 此風根也”라고 하였다.

7)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60 ; 《靈樞·邪氣藏府病形篇》에 “心脈微緩爲伏梁… 肝脈微急爲肥氣, …肺脈

1)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320 ; 《靈樞·五變篇》에서 “黃帝曰: 人之善病腸中積聚者,

역시 內經 이전에 성립이 되었으며, 難經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傷寒論에서는 五積중에서도 특히 奔豚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⁸⁾.

이외에도 內經에서는 積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積에 해당되는 腸覃, 石瘕 등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傷寒論에서 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結”이라는 표현으로 結胸, 藏結, 支結, 熱結, 小腹急結이라는 表現을 써서 積의 종류에 해당되는 다른 표현을 썼다⁹⁾.

이후의 文獻에서는 이러한 積聚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였는데, 內經에서 제시한 積의 개념이나 형성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종류를 좀더 세분하여

이해한 것이다. 결국 東醫寶鑑을 보면, 五積, 六聚, 七癥, 八瘕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또한 李中梓의 醫宗必讀에서는 酒積, 氣積, 血積, 痰積, 水積, 茶積, 癖積, 穀積, 肉積, 蜜積, 菜積, 麵積, 魚鱉積, 狗肉積, 蟲積, 瘡積 등의 여러 가지 原因別 積에 대한 나열도 있다¹¹⁾.

黃帝內經에 보면 積이 형성되는 기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經에 말하기를 積은 처음 寒氣를 얻어 생긴다고 하였다. 厥氣가 발에서 생겨 다리가 차가워지고 血脈이 응체되며, 寒氣가 腸胃에 들어가 臏脹이 되면 腸外에 모여 흩어지지 않아 積이 생긴다. 즉 寒氣가 아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 생기는 것이다. 厥氣란 거슬러 오르는 기를 말한다. 寒氣가 아래서

滑盛爲息賁上氣…”라 하였다.

8) 李培生 主編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27, p.124 ; “發汗後 其人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主之.”, “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라 함.

9) 《傷寒論·條文100》에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라고 한 것을 보면 《靈樞·上膈篇》에서 “…衛氣不營, 邪氣居之. 人食則蟲上食, 蟲上食則下管虛, 下管虛則邪氣勝之, 積聚以留”에서 말한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에서는 “積”이라는 표현 대신 “結”이라는 표현으로 積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11. 雜病篇 卷之五-八, p.178 ; 六聚는 六腑에 생긴 聚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大腸聚, 小腸聚, 膽聚, 胃聚, 膀胱聚, 三焦聚를 말하였고, 七癥은 蛟癥, 蛇癥, 鱉癥, 肉癥, 髮癥, 蟲癥, 米癥 또는 蛟癥, 龍癥, 魚癥, 鱉癥, 獺癥, 狐癥, 蛇癥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八瘕는 青瘕, 黃瘕, 燥瘕, 血瘕, 脂瘕, 狐瘕, 蛇瘕, 鱉瘕라 하였다. 이 八瘕를 《醫方類聚》에는 蛟龍瘕, 蛇瘕, 鱉瘕, 肉瘕, 髮瘕, 蟲瘕, 虎瘕, 米瘕라 하였다.

11) 李中梓 : 醫宗必讀, 서울, 文光圖書公司, 1976, pp.260~261.

거슬러 오르면 肢節이 아프고 막혀 불편하게 된다. 다리가 차가우면 血氣가 막히고 寒氣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腸胃에 점차 들어가면 腸胃가 차가워져 陽氣가 불화하여 臌脹이 된다. 臌脹이 되면 腸 바깥에 체액에 모여 흠어지지 않아 積이 형성된다.

갑자기 飲食을 많이 먹으면 腸이 가득차고, 起居가 부절하고 用力過度하면 絡脈이 상한다. 陽絡脈이 상하면 血이 바깥으로 넘쳐 衄血이 된다. 陰絡脈이 상하면 血이 안으로 넘쳐 便血이 된다. 腸胃의 絡脈이 상하면 血이 腸 밖으로 넘치고, 腸 밖의 차가운 체액과 血이 서로 만나 뭉치면 積이 된다¹²⁾.

12) 김달호(編釋) :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1173~1174 ; (百病始生).

黃帝曰 積之始生 至其已成奈何 岐伯曰 積之始生 得寒乃生 厥乃成積也 此下言積之所以成也.

黃帝曰 其成積奈何 岐伯曰 厥氣生足惋 惋生脛寒 脛寒則血脉凝滯 血脉凝滯則寒氣上入於腸胃 入於腸胃則臌脹 臌脹則腸外之汁沫 迫聚不得散 日以成積

此言寒氣下逆之成積者也 厥氣 逆氣也 寒逆於下 故生足惋 謂肢節痛滯不便利也由脛寒而血氣凝滯 則寒氣自下而上 漸入腸胃 腸胃寒則陽氣不化 故爲臌脹 而腸外汁沫迫聚不散 則日以成積矣 惋 焯本切 脛 形景形敬二切 卒然多食飲則腸滿起居不節 用力過度則絡脉傷 陽絡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 陰絡傷則血內溢 血內溢則後血 腸胃之絡傷 則血溢於腸外腸外有寒汁沫與血相搏 則并合凝聚不得散而積成矣.

類經에서 장경악은 이 부분 중 食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飲食起居가 절도를 잃으면 積이 형성된다. 갑자기 飲食을 폭식하면, 腸胃의 운화가 못 미쳐 膜外의 체액과 血이 서로 만나 食積이 된다. 어린 아이들의 痞疾이 이러한 종류이다. 起居用力이 과도하면 陰陽의 絡脈이 상하여 血을 움직여 瘀血이 생기고 瘀血이 腸外의 체액과 합쳐져 血積이 생긴다¹³⁾.

2. 東醫寶鑑에 나타난 食積

東醫寶鑑에서는 여러 가지 積 중에서도 食積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食積, 痰飲, 瘀血을 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 몸에 積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飲食과 七情이다.

1) 食積의 위치

左右로 나누었을 때 주로 右側에

13) 張介賓 :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458; (疾病類).

此言食飲起居失節之成積者也 卒然多食飲 謂食不從緩 多而暴也 腸胃運化不及 則汁溢膜外 與血相搏 乃成食積 如嬰童痞疾之類是也 又或起居用力過度 致傷陰陽之絡以動其血 瘀血得寒 汁沫相聚於腸外.

나타나며, 上下로 나누었을 때는 上腹部 위주, 深淺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피부와 근막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로 언급되어 있다.

<積聚門-痞塊 積聚 所屬部分>

痞塊나 積聚가 가운데에 있는 것은 痰飲이다. 右側에 있는 것은 食積이다. 左側에 있는 것은 血積이다. 左關脈은 肝膽의 위치인데 주로 혈액을 저장하고, 右關脈은 脾胃의 위치인데 주로 飲食을 저장하며, 가운데는 水穀이 출입하는 道路이다. 그러므로 左側은 血塊이고, 右側은 食積이고 중간은 痰飲이라는 이치는 명확한 것이다¹⁴⁾.

<積聚門-痞塊 證治>

塊는 有形的 물질이니 氣로는 塊가 될 수 없다. 痰飲이나 食積이나 瘀血로 생긴다.

痞塊는 피부와 근막의 사이에 있는데 모두 二陣湯에 氣를 보하는 약과

氣를 통하게 하는 藥을 넣어야 하고, 먼저 기름진 飲食을 끊어야 한다¹⁵⁾.

<腹門-腹痛部位>

윗배가 아픈 것은 食積이나 外邪로 생기고, 배꼽 부위가 아픈 것은 대부분 積熱이나 痰火로 생기고, 아랫배가 아픈 것은 대부분 瘀血, 痰飲, 尿澁으로 생긴다¹⁶⁾.

2) 食積의 원인 및 증상

食積의 원인은 飽食과 水穀 寒熱의 치우침, 脾胃 虛弱 등인데, 그 증상은 트림, 吞酸, 惡心, 腹痛, 頭痛, 發熱 등 매우 다양하다. 脈象은 右側 脈(氣口脈)이 緊盛한 것이 특징이다.

東醫寶鑑 內傷門의 食傷證에는 食傷의 원인, 증상 치료법이 나온다.

<內傷門-食傷證>

飲食을 많이 먹으면 腸胃가 상한다. 水穀의 寒熱이 들어오면 六腑를 해친다. 飽食하면 근맥이 제멋대로

14) 許俊 :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1. p1387 ; 痞塊 積聚 所屬部分.

痞塊 積聚 在中爲痰飲 在右爲食積 在左爲血積(丹心).

夫 左爲血塊 右爲食積 中爲痰飲 此言誠然 夫左關 肝膽之位 主藏血液 右關 脾胃之位 主藏飲食 中間 則爲水穀出入之道路 所以左爲血塊 右爲食積 中爲痰飲 其理昭然(丹心).

15) 上揭書, p1386 ; 痞塊證治.

塊 是有形之物 氣 不能成塊 乃痰與食積·死血也 宜用化塊丸(丹心).

凡痞塊 在皮裏膜外 俱宜二陳湯方見上 氣鬱 加補氣 行氣藥 先須斷厚味(丹心).

16) 上揭書, p690 ; 腹腹痛部位.

大腹痛 多食積 外邪 臍腹痛 多積熱 痰火 小腹痛 多瘀血及痰與尿澁(入門).

풀어져 腸滯이 생겨 치질이 된다. 陰은 五味에서 생겨나니 陰의 五宮은 五味로 인해 상한다. 주에 “陰은 五臟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食傷證에는 氣口脈이 만드시 緊盛하고 胸膈이 만드시 막히며, 트림하면 썩은 계란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에 熱이 나는 것이다. 다만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다를 뿐이다. 食傷은 많이 먹어서 생긴다. 飲食을 제대로 消化시키지 못하고 가슴과 배에 머물러 배부르고 답답하며, 飲食을 싫어하여 먹지 않고, 트림을 할 때 신물이 나오고 냄새나는 방귀를 끼거나, 혹은 배가 아프고 뉘하며 泄瀉한다. 중할 때는 發熱 頭痛이 있다. 左關脈이 和平하고 右關脈이 緊盛한 것이 食傷證이다. 飲食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氣가 소모된다.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와 嘔吐하면 心の 근원이 소모된다. 마신 것을 삭히지 못하여 가래가 된 것을 침으로 뱉으면 腎水가 소모된다. 大便이 잦거나 泄瀉하면 穀氣가 변화하지 못한다. 小便이 너무 잘 나오거나 탁하면 몸을 적셔주는 샘물이 마르고, 심하면 精이 차가워져 밀므로 새고

땀이 저절로 줄줄 흐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過食이나 기름진 飲食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다. 배부르면 肺를 상하고, 배고프면 氣를 상한다¹⁷⁾.

東醫寶鑑 積聚門에는 여러 가지 積과 食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積聚門-諸物傷成積>

脾胃가 虛弱하거나 飲食을 지나치게 먹거나 날것이나 찬 飲食을 지나치게 먹어서 제대로 消化시키지 못하면 積聚나 結塊가 생겨, 명치가 불러 오르며 트림하고 呑酸이 있으며 얼굴이 퍼렇고 살이 여윈

17) 上揭書, p1204 ; 食傷證.
飲食自倍 腸胃乃傷.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府.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滯爲痔.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
註曰 陰爲五臟也(東垣).
傷食之證 氣口脈必緊盛 胸膈必痞塞 噎氣如敗卵氣臭 亦有頭痛 身熱 但身不痛爲異耳(丹心).
傷食 因多飡飲食 不能運化 停於胸腹飽悶 惡食不食 噯氣作酸 下泄臭庇 或腹痛吐瀉 重則發熱頭痛.
左手關脈平和 右手關脈緊盛 此傷食也.
蓋食物 飽甚 耗氣非一 或食不下 而上涌嘔吐 以耗靈源 或嗜不消 而作痰 作唾 以耗神木 大便頻數 以泄耗穀氣之化生 洩便滑利 而濁 耗源泉之浸潤 至於精 清冷而下 漏汗 淋瀝 而自泄 莫不由食物之過 傷滋味之 太厚也(回春).
凡飽則傷肺 飢則傷氣(得效).

다. 첫째는 食積이고, 둘째는 酒積이고, 셋째는 麵積이고, 넷째는 肉積이고, 다섯째는 魚蟹積이고, 여섯째는 果菜積이고, 일곱째는 茶積이고, 여덟째는 水積이고, 아홉째는 血積이고, 열 번째는 蟲積이다¹⁸⁾.

- 食積

飲食이 消化되지 않아 積이 되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할 때는 平胃散에 砂仁, 香附子, 神麴, 麥芽를 넣은 것에 生薑, 紫蘇葉을 넣고 달여 먹는다¹⁹⁾.

3) 食積으로 인한 증상의 종류

食積은 만병의 근원으로 食積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증상이 발현된다.

食痰, 食積泄, 食積痢, 食積胃脘痛, 食積腹痛 등 소화기계 관련 증상 뿐만 아니라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등으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食積嗽, 胃咳, 脾咳 등이 있고, 순환기 증상으로는 심장과 연관하여 胃心痛, 積心痛이 있으며, 생식기 계통으로는 여자의 경우 癥瘕, 疝癖 등의 자궁, 난소질환이 있고, 남자의 경우 疝症, 음낭질환 등이 있다. 腰脇部로 증상이 옮겨지면 食積脇痛, 食積腰痛 등의 통증질환이 발생되고, 오관과 증상으로 鼻痔 등도 생긴다. 小兒門을 보면 小兒질환의 대부분은 食積임을 알 수 있다.

(1) 소화기 관련 증상

<痰門-食痰>

食痰은 食積痰을 말한다. 飲食이 消化되지 않거나 瘀血을 끼면 마침내 낭종이 생기고, 대부분 癖塊, 痞滿이 된다. 靑蒙石丸, 黃瓜萆丸, 正傳加味二陣湯을 써야 한다²⁰⁾.

<痰門-痰病不卒死>

대개 병이 오래 되었으나 갑자기 죽지 않는 것은 대부분 食積이나 痰飲으로 인한 것이다. 胃가 痰飲,

18) 上揭書, p1397 ; 諸物傷成積.

凡人脾胃虛弱 或飲食過傷 或生冷過度 不能剋化 致成積聚結塊 心腹脹滿 噯氣 吞酸 面青肌瘦.

一曰食積 二曰酒積 三曰麵積 四曰肉積 五曰魚蟹積 六曰果菜積 七曰茶積 八曰水積 九曰血積 十曰蟲積(得效).

19) 上揭書, p1397 ; 食積

食不消化成積 痞悶 宜用平胃散方見內傷 加砂仁 香附子 神麴 麥芽 入生薑 紫蘇葉煎服(得效).

食積宜用 保和丸 大安丸 連蘿丸 紅圓子 佐脾丸(寶鑑).

20) 上揭書, p1386 ; 食痰.

卽食積痰也 因飲食不消 或挾瘀血 遂成窠囊 多爲癖塊 痞滿 宜靑蒙石丸 黃瓜萆丸 正傳加味二陳湯(醫鑑).

食積에 의해서도 길러지므로 비록 적게 먹더라도 胃氣가 갑자기 허해지지 않는기 때문이다²¹⁾.

<大便門-大便病因>

積이 없으면 痢疾이 되지 않는다. 모두 여름철에 날것과 찬 것을 지나치게 먹고 제대로 消化시키지 못하여 飲食이 쌓이고 막혀 痢疾이 되는 것이다²²⁾.

<大便門-八痢危證>

첫째는 熱로 赤痢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冷으로 白痢가 있는 것, 셋째는 冷熱이 더해져 赤白痢가 있는 것, 넷째는 食積으로 신냄새가 나는 것, 다섯째는 驚風으로 청색의 이질이 있는 것, 여섯째는 脾虛로 消化되지 않는 것, 일곱째는 유행병으로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여덟째는 疝痢인데, 이것이 곧 瀉瀉이다²³⁾.

<大便門-食積泄>

泄瀉를 할 때는 배가 심하게 아프다가泄瀉한 뒤에는 덜 아프고, 계란 썩는 냄새가 나며, 트림하면 신물이 나올 때는 平胃散에 香附 縮砂 草果 山查子 麥芽를 넣어 달여 먹는다.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泄瀉하다가泄瀉가 멎으면 덜 아프고, 맥이 弦滑할 때는 香砂平胃散에서 枳實을 빼고 白朮 白茯苓을 넣어서 써야 한다.

食積에 상하여泄瀉하는 것은 대변이 흰 것으로 알 수 있다. 積滯로泄瀉할 때는 배가 반드시 갈아엎는 듯이 아프면서泄瀉한다. 혹 배가 더부룩하고, 누르면 단단한 것도 이러한 것이다. 神麴 麥芽 山查 같은 것들을 써서 消化시켜야 한다. 飲食物이 수일 동안 정체되었다가泄瀉하는 것을 瀉泄이라고 한다. 枳朮丸을 써야 한다²⁴⁾.

八曰疝痢.

24) 上揭書, p391 ; 食積泄.

泄而腹痛甚 瀉後痛減 臭如抱壞雞子 噫氣作酸 平胃散方見五臟 加香附 縮砂 草果 山查子 麥芽煎服(入門).

腹痛甚而瀉 瀉後痛減 脈弦而滑 宜香砂平胃散 去枳實 加白朮 白茯苓(回春).

傷食積而泄 糞白 可驗(得效).

凡積滯泄瀉 腹必耕痛 方泄者 是也 或肚腹滿 按之堅者 亦是也 宜用神麴 麥芽 山查之類 以消之(丹心).

有停飲食 數日乃瀉 名曰瀉泄 宜枳朮丸.

21) 上揭書, p216 ; 痰病不卒死.

大凡 病久淹延卒不死者 多因食積痰飲所致 何以然者 蓋胃氣亦賴 痰積所養 飲食雖少 胃氣卒不便 虛故也(丹心).

22) 許俊 :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1., p380 大便病因.

<古人>云 無積不成痢 皆由暑月多食生冷 不能剋化 飲食積滯 而成痢也(類聚).

23) 上揭書, p413 ; 八痢危證

一曰赤痢 二曰白痢. 三曰赤白痢 四曰食積痢 五曰驚痢 六曰脾虛痢 七曰 時行痢

<腹門-食積腹痛>

맥이 弦한 것은 食積痛이니 따뜻하게 흠어 주어야 한다. 윗배가 아픈 것은 대부분 食積에 속한다. 食積으로 아플 때는 따뜻하게 흠어 주어야 한다. 乾薑炒, 蒼朮, 川芎, 白芷, 香附, 薑汁 같은 것들을 써야 하며 함부로 강하게 泄瀉시키는 약으로 泄瀉시켜서는 안된다. 飮食物은 寒氣를 만나면 영기고 熱氣를 만나면 消化되기 때문에 氣를 잘 돌게 하는 약을 함께 쓰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 통증이 심하면서 大便을 누고 싶고, 泄瀉한 뒤에는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食積이다. 食積痛에는 平胃散에 山查, 神麴, 麥芽, 縮砂, 靑皮를 넣거나, 加味二陣湯으로 조리하거나, 木香檳榔丸을 쓰거나 혹 利氣丸으로 泄瀉시킨다. 飮食物이 가슴에 가득 차 아플 때는 吐하게 해야 한다. 瓜蒂散, 생강과 소금을 달인 물을 써야 한다. 食積腹痛에는 丁香脾積丸을 써야 한다²⁵⁾.

25) 上揭書, p657 ; 食積腹痛.

脉弦者 食積痛 宜溫散之(丹心)

在上者 多屬食 食能作痛 宜溫散之 如乾薑炒 蒼朮 川芎 白芷 香附 薑汁之類, 不可妄用峻藥攻下. 盖食得寒則凝 得熱則化 更兼行氣 快氣藥助之 無不愈者(丹心).

(食則)痛甚 欲大便利後 痛減者 是食積

<胸門-食積胃脘痛>

過食으로 積滯가 되어 胃脘痛이 생기면 먼저 吐法을 쓴 후 香蘇散에 生薑, 葱白, 烏梅를 넣고 달여 먹는다. 平胃散에 麴, 麥芽, 山查肉을 넣기도 한다. 加味二陣湯, 加味枳朮丸을 써야 한다²⁶⁾.

(2) 호흡기 관련 증상

<咳嗽門-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

기침은 肺에 속하지만 다른 장부에도 속한다고 하였으며 脾咳, 胃咳, 三焦咳 등을 食積과 연관하여 볼 수 있다.

脾咳의 증상은 기침하며 右側 겨드랑이 아래가 아프고 은근히 어깨와 등이 당기며, 심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면 기침이 심해지는 것이다²⁷⁾. 脾咳가 몇지 않으

也(丹心).

食積痛 平胃散方見內傷 加山查 神麴 麥芽 縮砂 靑皮 或加味二陳湯方見痰飲調之 木香檳榔丸 或利氣丸下之(入門).

食物填塞 心胸作痛 宜吐之 用瓜蒂散方見吐門 薑鹽湯方見霍亂(入門).

食積腹痛 宜丁香脾積丸(丹心)

26) 上揭書, p659 ; 食積胃脘痛.

飮食過多 以致積滯 成胃脘痛 先用吐法 次用香蘇散方見寒門 (方見上 食心痛). 入生薑 葱白 烏梅煎服 (得效).

或平胃散方見內傷 方見上 食心痛 加神麴 麥芽 山查肉(入門).

宜用加味二陳湯方見痰飲 加味枳朮丸方見上.

면 胃가 받는데 胃咳의 증상은 기침할 때 구역질하고 구역질이 심하면 長蟲이 나오는 것이다²⁸⁾.

기침이 오래도록 멎지 않으면 三焦가 받는데 三焦咳의 증상은 기침할 때 배가 더부룩하고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胃에 모이고 肺와 연관되니 탁한 침이 많이 나오고 얼굴이 부으며 氣가 거슬러 오른다²⁹⁾.

<咳嗽門-食積嗽>

食積嗽는 食積으로 가래가 나오고 기침하며, 가슴이 그득하고 싯트림이 나는 것이다. 二陣湯에 厚朴, 山查子, 麥芽를 넣어야 한다. 食積嗽는 青黛, 瓜婁實이 아니면 치료하지 못한다. 또 ‘食積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퍼렇거나 희거나 누런 것이 일정하지 않다’고도 했는데, 얼굴에 게 발자국 모양으로 누렇게 허연 것이 있다. 食積으로

痰嗽에 熱이 날 때는 半夏와 南星을 君藥으로 삼고 瓜婁實, 薑子를 臣藥으로 삼으며, 青黛, 罌石을 使藥으로 삼고 생강즙을 넣어 쑤 풀로 반죽하여 丸을 만들어 복용한다. 혹 三補丸(芩連栢)에 二母를 볶아 가루 내어 넣고 물로 산초만하게 丸을 만들어 죽력, 연근즙에 먹는다. 食積嗽에는 瓜婁丸, 青金丸, 二母寧嗽湯, 溫脾湯, 香附丸을 써야 한다³⁰⁾.

(3) 순환기 관련 증상

<胸門-積心痛>

飲食으로 積聚가 생긴 상태에서 飲食을 먹으면 다시 발작하는 것을 積心痛이라고 한다. 飲食을 먹은 후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입을 악물고 말을 하지 못하며, 사

27) 上揭書, p1325.

脾咳之狀 咳則右肱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咳劇

28) 上揭書, p1325 ;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

脾咳不已 引胃受之 胃咳之狀 咳而嘔嘔甚則長虫出.

29) 上揭書, p1325.

久咳不已 則三焦受之 三焦咳狀咳 而腹滿不欲食飲.

-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多濁唾而面浮腫 氣逆.

(內經 欬論篇 第三十八).

30) 上揭書, p1325 ; 食積嗽.

因食積 生痰 咳嗽胸滿 噎酸 宜二陳湯方 見痰飲 加厚朴 山查子 麥芽(入門)

食積嗽 非青黛 瓜婁實 不除 又云 食積人面青白 色不常 面上如蟹爪路 一黃一白是也.

食積痰嗽 發熱者 半夏南星並製爲君 瓜婁實 薑子爲臣 青黛石礪爲使 薑汁糊爲丸服(丹心).

<一方>三補丸芩連栢也 加二母(知母 貝母)炒爲末 水丸椒核大 而竹瀝藕汁 吞之(丹心).

食積嗽 宜瓜婁丸 青金丸 二母寧嗽湯 溫脾湯 香附丸(諸方).

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四肢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과식으로 氣道가 막혔거나 성내어서 그런 것이다. 급히 생강과 소금을 달인 물을 많이 부어 넣고 목구멍을 더듬어서 토하게 한 후 平胃散, 六君子湯을 복용한다. 食積 心痛에는 行氣香蘇散, 煮黃丸, 草豆蔻丸, 加味枳朮丸을 써야 한다³¹⁾.

<胸門-胃心痛>

胃心痛은 배가 불러오르면서 心痛이 있고, 胃脘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곳까지 아픈 것이다. 內經에 “울체된 木氣가 퍼져 나오면 사람들은 胃脘에서 심장에 해당되는 곳이 아프고, 위로 양 옆구리가 결리며, 목구멍이 막혀 飲食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厥陰의 氣가 성하면 胃脘에서 심장에 해당되는 곳이 아프다”고 하였다. 木氣가 울체되었다가 퍼져 나오는 것이 태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木이 해쳐서 土가 패하

는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胃는 脾의 腑로 陽이 陰보다 앞서기 때문에 腸이 병들기 전에 腑가 먼저 병든 것이다. 草豆蔻丸, 加味枳朮丸, 清熱解鬱湯, 清鬱散을 써야 한다³²⁾.

(4) 부인과 관련 증상

<積聚門-癥瘕 痃癖의 증상과 치료법>

癥이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痃란 단단하나 움직이는 것이다. 모두 痰飲, 食積, 瘀血로 덩어리가 된 것인데, 積聚, 癥瘕, 痃癖이 실은 같은 것이다³³⁾.

이러한 병들은 우연히 飲食物에 상하여 된 것인데, 痃가 癥에 비해 약간 가볍다. 또 腸覃 石瘕 血蠱는 모두 여자의 병으로 종류는 다르지만 痞塊의 이명이다³⁴⁾.

31) 上揭書, p657 ; 積心痛.

飲食積聚 遇食還發 名曰 積心痛(類聚).
凡人飲食後 忽然暈倒 口噤不言 目不識人 四肢不舉 多因飲食過度 氣道窒塞 或着氣惱 而然 急用薑鹽湯 多灌探吐之 後服平胃散方見五臟 方見上 食心痛 六君子湯 方見痰飲.
食積心痛 宜用行氣香蘇散 煮黃丸方見下 心胃痛當分虛實 草豆蔻丸方見上 冷心痛 加味枳朮丸.

32) 上揭書, p655 ; 胃心痛.

腹脹而心痛 胃脘當心而痛. 《內經》曰 “木鬱之發 民病當心而痛” 上支兩脇 嗝咽不通.

<又> 厥陰之勝 胃脘當心而痛(綱目).
蓋木氣被鬱 發則太過故 民病有土敗 木賊之候也. 夫胃爲脾之府 陽先於陰故 藏未病而府先病也(正傳).

宜用草豆蔻丸方見上 冷心胃痛 加味枳朮丸 清熱解鬱湯 清鬱散.

33) 上揭書, p1392.

癥者堅而不移 瘕者堅而能移 皆因痰飲 食積 死血而成塊 積聚 癥瘕 痃癖 其實一也(入門).

34) 上揭書, p1393.

癥名有七 蛟 龍 魚 鱉 獺 狐 蛇是也 亦曰 蛇 蛟 鱉 肉 髮 虱 米也.

癥은 飮食에 상해서 생기고, 癰은 血로 인해 생긴다. 痞의 원인은 氣를 상한 것이고, 癥의 원인은 精을 상한 것이다³⁵⁾.

대개 痞塊와 痰癖은 胸膈의 병이고, 積聚는 臍속의 병이다. 이것들은 上焦, 中焦의 병으로 대부분 남자에게 나타난다. 癥癰는 유독 배꼽 아래에 나타나는데, 下焦의 질병이기 때문에 늘 부인에게 나타난다.

腸覃 石瘕 血蠱에서 腸覃은 腸밖에 생기므로 월경을 제대로 하지만, 石瘕는 자궁 속에 생기므로 월경을 하지 못한다³⁶⁾.

‘癥瘕의 동서의학적 고찰’³⁷⁾을 참고하면 癥瘕는 여성성기 및 그

주위에 발생하는 종양질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腸覃은 난관육종이나 난소종양 중에서 낭포성인 난소종양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石瘕는 자궁경관부의 근종을 지칭한다. 腸覃의 병인은 寒氣客於腸外이고, 石瘕는 寒氣客於胞門이다. 血蠱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악성 종양의 말기증상인 복수가 복부에 충만 팽대된 상태를 지칭하며, 水蠱는 거대난소낭종을 지칭한다.

(5) 남성과 관련 증상

<前陰門-諸疝治法>

단계는 痰飲, 食積, 瘀血이 足厥陰肝經으로 흘러든 것으로 보아 맵고 평온한 약으로 담을 소통시키고, 積을 삭이며, 瘀血을 깨뜨렸다. 그 本을 치료한 것이다. 疝痛이 있을 때 일정한 부위가 아픈 것은 유형의 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痰飲, 食積, 瘀血이 서로 모여서 생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無形의 氣로 아프다면 통증이 온 배로 돌아다니다가 온몸으로 흩어질 것이다.

疝痛이 돌아다니며 無形인 것은 氣에 속하고, 疝痛이 한 곳에 머물

癥名有八 青黃燥血脂狐蛇鱉是也. 此等病 偶因食物 相感而然 瘕比癥稍輕.

又有腸覃 石瘕 血蠱 皆女子之疾 種種不同 乃痞塊之異名也(千金)

35) 上揭書, p1393.

癥者 徵也 腹中堅硬 按之應手 曰癥. 瘕者 假也 腹中雖硬 而忽聚忽散 無有常處 曰瘕 瘕 因傷食 瘕 是血生 痞原傷氣 癖則傷精(入門).

36) 上揭書, p1393.

大抵 痞與痰癖 乃胸膈間之病 積與聚 爲肚腹內之疾 其爲上中二焦之病 多見于男子. 其癥與瘕 獨見于臍下 是爲下焦之疾 故常得于婦人也(正傳).

治法同積聚. 腸覃 石瘕 血蠱見下. 腸覃 生於腸外 月事時下 石瘕 生於胞中 月事不下(千金).

37) 양수열, 이경섭, 송병기 : 癥瘕의 東西醫學的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4, Vol. 7, No.1.

러 있으며 有形인 것은 濕痰, 食積, 瘀血에 속한다³⁸⁾.

<前陰門-陰卵偏墜(음낭한쪽이 처진 것)>

한쪽 음낭이 크게 붓고 한쪽으로 처져 당기거나 아픈 것을 고방에서는 卵癢라고 하였다. 左側이 처지는 것은 대부분 瘀血이나 怒火로 생긴 것이고, 右側이 처지는 것은 濕痰이나 食積으로 인한 것이다³⁹⁾.

(6) 小兒 관련 증상

小兒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食積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食積의 위치는 양 옆구리와 中脘이다. 옆구리는 대횡에 가까우며

小兒 치료에 대횡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小兒門-積癖>

食積은 小兒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飮食을 먹었을 때 아직 위장이 약해 제대로 消化시키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다. 배가 불러 오르거나 몸이 여위고 약해지며, 痢疾의 색은 일정치 않다. 積證에는 젖에 상한 것과 飮食에 상한 것이 있다. 몸에 熱이 있는데, 특히 배에 熱이 심하다. 야간에 熱이 있는 것은 積證의 분명한 증거이다. 小兒의 積證은 얼굴이 누렇게 붓고, 배가 불러 오며, 구역질을 많이 하고, 기름같은 小便을 누며, 눈동자가 누렇게 되고, 뺨속에서 소리가 나며, 잠을 많이 자고, 赤白痢가 있으며, 泄瀉를 많이 하는 것이다. 積滯가 있으면 반드시 虛實을 구분해야 한다. 實할 때는 진식환, 소식환을 복용하고, 虛하고 말랐을 때는 비아환을 써야 한다. 小兒의 癖證은 젖이나 飮食이 消化되지 않고 뺨속에 잠복하여 생긴 것이다. 추웠다 더웠다 하고 물을 계속 먹거나 숨이 차면서 기침을 하여 潮熱과 비슷하다.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38) 許俊 :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1., p.820 諸疝治法.

疝痛 屬濕熱 痰積流下作疝 因寒鬱而發也(丹心).

疝痛之證 《古方》 用辛溫之劑 以散之是治其標也.

《丹溪》 以爲痰飲·食積·死血 流走歸於厥陰肝經 用辛平之藥 以豁痰·消積·破血是治其本也.

夫疝痛 有定處 是有形之積也 非痰飲與食積·死血 相聚而何哉. 若是無形之氣作痛 則走注滿腹 而流散於遍身矣(方廣).

凡疝痛 走注無形者 屬氣也. 痛有常處而有形 乃濕痰·食積·瘀血也(入門).

39) 上揭書, p828 ; 陰卵偏墜.

陰卵一邊腫大 偏墜牽引 或痛.

《古方》謂之卵癢. 宜金鈴子散 茱萸內消元 馬蘭花丸 茴香安腎湯 加減香苓散.

偏左 多瘀血 怒火 偏右 多濕痰 食積(入門).

반드시 勞疢이 되어 寒熱이 있고 물을 마시며, 옆구리 아래에 무엇이 생겨 단단하고 아프다. 약을 써서 점차 없애야 한다. 癥癖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고, 脾胃가 허하여 熱이 나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다. 癖塊는 양 옆구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痞結은 中脘을 막고 있는 것이다. 모두 젓을 알맞게 먹이지 않았거나 飲食이 정체된 상태에서 邪氣에 맞부딪쳐 생긴다⁴⁰⁾.

(7) 五官 관련 증상

40) 上揭書, p1891 ; 積癖.
食積者 凡小兒失乳 以食飼之 未有食腸 不能剋化 致成食積 腹脹瘦弱 痢色無常 (東垣).
積證 有傷乳 傷食而身體熱者 惟肚熱爲甚耳 夜間有熱者 傷積之明驗也(永類).
小兒積證.
面黃腫 腹脹 多嘔 小便如油 眼睛黃 腹內虛鳴 多睡 赤白痢 多瀉.
凡有積滯 須辨虛實 實者 可服進食丸 虛而有疳瘦者 宜服肥兒丸方見上 諸疳通治.
小兒病癖 由乳食不消 伏在腹中 乍涼乍熱 飲水不止 或喘而嗽 與潮熱相類 若不早治 必成勞疢.
寒熱飲水 脇下有形硬痛 法當用藥 漸消磨之 以其有癥癖 故令兒不食 脾胃虛而發熱 故引飲也(錢乙).
癖塊者 僻於兩脇 痞結者 否於中脘 皆因乳哺失節 飲食停滯 邪氣相搏而成也(回春).
乳食積 宜用七聖丸 厚腸丸 白餅子.
癖塊 宜用紫霜丸方見上 六味三菱丸 廣朮化癖丸 千金消癖丸 化癖如神散.
愛喫泥土 宜清胃養脾湯 治喫泥方(綱目).

<鼻門-鼻痔>

군살은 胃속에 있는 食積이나 熱痰이 흘러 다니기 때문이다. 南星, 半夏, 蒼朮, 神曲, 細辛, 白芷, 甘草 酒炒 芩連을 달여 먹고, 瓜礬散을 外用하면 저절로 낫는다. 콧속의 군살로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 없고, 아파서 건드리지도 못할 경우 백반가루에 약간의 땅사를 넣어 콧속에 붙어넣으면 잠시 후 물로 변하여 없어진다. 그런 후 勝濕湯이나 瀉白散을 투여한다. 이것은 기름진 飲食이 쌓여서 생긴 濕熱이 肺門을 훈증하기 때문이다. 마치 비가 개인 후 갑자기 버섯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⁴¹⁾.

(8) 근골격계 관련 증상

<腰門-食積腰痛>

食積腰痛은 술에 취하거나 배불리 먹고 성생활을 하여 濕熱이 허한 틈을 타고 腎으로 들어가 요통

41) 上揭書, p569 ; 鼻痔.
瘰肉 因胃中有食積 熱痰流注 宜以南星 半夏 蒼朮 神曲 細辛 白芷 甘草酒炒 芩連煎服.
-外用 瓜礬散自愈(綱目).
鼻中贅肉 臭不可近 痛不可搖 以白礬末 加礪砂少許 吹其上 頃之化水而消 與勝濕湯方見濕門 瀉白散方 見五藏 此厚味 壅滯 濕熱蒸於肺門 如雨霽之地 突生芝菌也(醫鑿).

이 생겨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 어려운 것이다. 四物湯에 二陣湯을 합한 것에 麥芽, 神麴, 葛花, 縮砂, 杜冲, 黃栢, 官桂, 枳殼, 桔梗을 넣어 달여 먹는다. 통증이 심할 때는 速效散을 써야 한다⁴²⁾.

<脇門-食積脇痛>

食積으로 옆구리 아래에 한줄기 통증이 뻗쳐오를 때는 神保元을 枳實 달인 물로 먹는다. 추워하면서 熱이 나며, 옆구리가 아프고 食積의 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飲食을 너무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當歸龍薈丸으로 치료해야 한다⁴³⁾.

3) 食積의 治療法

飲食을 적게 먹고, 消化劑로 消化시키며, 심하면 泄瀉시키거나 토

하게 해야 한다.

허할 경우에는 脾를 보해야 하는데 火生土를 위해 心經의 약을 같이 쓴다.

처방으로는 痰을 삭히고 脾를 보하기 위한 二陣湯이나 泄瀉시키는 大柴胡湯이 다용된다.

또한 內傷門의 導引法을 보면 술이나 飲食에 중독되었을 때는 하늘을 보는 동작(뒤로 젖히는 동작)을 통해 氣血순환을 원활히 하며 심호흡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內傷門-食傷治法>

飲食은 有形의 물질이기에 食傷이 되면 飲食을 적게 먹어야 하고, 다음으로 消化劑를 써야 한다. 丁香飯爛丸, 枳朮丸 같은 약을 주로 쓴다. 점점 중해지면 泄瀉시키면서 消化시켜야 하니 三菱消積丸, 木香見睨丸 같은 약을 주로 쓴다. 더욱 중해지면 토하게 하거나 泄瀉시켜야 한다.

食傷에는 반드시 飲食을 싫어하고 가슴속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痰을 삭히고 脾를 보해야 하니 二陣湯에 白朮, 山查, 川窮, 蒼朮을 넣어 쓴다. 脾胃를 보하는 약에 반드시 心經의 약을 쓰는 것은 火가 土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옛 처방에서 益智仁을 쓴 것이

42) 上揭書, p708 : 食積腰痛.
因醉飽入房 濕熱乘虛入腎 腰痛難以俛仰 四物湯合 二陳湯 加麥芽 神麴 葛花 縮砂 杜冲 黃栢 官桂 枳殼 桔梗煎服 痛甚者 宜速效散(入門).
43) 上揭書, p720 : 食積脇痛.
食積 脇下如杠梗 起一條作痛 神保元 方見上 氣鬱 脇痛 以枳實煎湯 吞下(入門).
發寒熱 脇痛 似有積塊 必是飲食太飽 勞力所致 須用當歸龍薈丸方見五臟 見上 脇痛有五之(正傳).

바로 이 뜻이다44).

찬 飲食에 상했을 때는 半夏, 神麴, 乾薑, 三稜, 蓬朮, 巴豆같은 것을 쓰고, 뜨거운 飲食에 상했을 때는 枳實, 白朮, 靑皮, 陳皮, 麥芽, 黃連, 大黃 같은 것을 주로 쓴다.

食傷에는 消化시키는 법과 補하는 법이 있는데 구분하여 치료해야 한다45).

<食傷消導之劑>

食積이 中脘이나 下脘에 있을 때는 泄瀉시켜 몰아내어야 하니 木香見睨丸, 丁香脾積丸을 쓴다.

宿食을 消化시키려면 枳朮丸, 橘皮枳朮丸, 木香枳朮丸, 半夏枳朮丸, 麴蘖枳朮丸, 橘半枳朮丸, 橘連枳朮丸, 平胃散, 加味平胃散, 棗肉平胃散, 內消散, 消滯丸, 加減保和丸, 七香元, 枳實導滯丸, 木香化滯湯,

44) 上揭書, p1205 ; 食傷治法.

食者 有形之物 傷之 則宜損其穀 其次莫若消導. 丁香飯爛丸 枳朮丸之類 主之. 稍重 則攻化 三稜消積丸 木香見睨丸之類 主之. 尤重 則或吐之 或下之(丹心).

傷食 則必惡食 胸中有物 宜導痰補脾 二陳湯 加白朮 山查 川窮 蒼朮(丹心).

補脾胃藥 內必用心經藥 盖火能生土 故也. 《古方》 用益智仁 正是此意(丹心).

45) 上揭書, p. 1205.

傷寒物者 半夏 神麴 乾薑 三稜 蓬朮 巴豆之類 主之. 傷熱物者 枳實 白朮 靑皮 陳皮 麥芽 黃連 大黃之類主之(東垣).

食傷 有消導 補益兩法 當分而治之(東垣).

豆蔻橘紅散, 香殼丸, 二黃丸, 三稜消積丸, 穀神元을 써야 한다46).

<食傷補益之劑>

脾胃가 약하여 飲食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무조건 치는 약을 쓰면 안된다. 錢氏異功散으로 補해야 자연히 먹을 수 있다.

오래된 食滯를 吐하거나 泄瀉한 후 氣가 虛하면 四君子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으로 補해야 한다. 食傷으로 胃가 약할 때는 醒脾育胃湯, 參朮健脾湯, 七珍散, 八珍散, 健胃保和元, 養脾丸, 八味理中丸, 滋脾丸, 異功散, 健脾丸, 參苓壯脾元, 千金養脾元을 써야 한다47).

46) 上揭書, p. 1205.

食積在中 下脘者 宜下 以逐之 木香見睨丸 丁香脾積丸方見腹痛, 宿食吐下後 未淨者 紅元子 保和丸 大安丸三方並見積聚 平補枳朮丸即竹瀝枳朮丸 方見痰飲 傷肉 多腹脹 三補丸方見大便 加香附 半夏麴 蒸餅和丸服(入門). 宿食消化 宜用枳朮丸 橘皮枳朮丸 木香枳朮丸 半夏枳朮丸 麴蘖枳朮丸 橘半枳朮丸 橘連枳朮丸 平胃散方見五藏 加味平胃散 棗肉平胃散 內消散 消滯丸 加減保和丸 七香元 枳實導滯丸 木香化滯湯 豆蔻橘紅散 香殼丸 二黃丸 三稜消積丸 穀神元(諸方).

47) 上揭書, p.1210.

脾胃弱 而飲食難任者 不可一槩 用剋伐之藥 宜錢氏異功散 補之 自然能食 設或嗜食 大過傷脾 痞滿者 權用枳實丸(即枳實導滯丸) 勿多服(綱目).

宿食 吐下後 氣虛 宜補四君子湯方見氣門 六君子湯方見痰飲 補中益氣湯方見勞倦傷治法(入門).

食傷胃弱 宜用醒脾育胃湯 參朮健脾湯

<胸門-心胃痛宜吐>

飲食을 지나치게 먹어 心痛이 심하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경우 생강과 소금 달인 물을 많이 마시고, 목구멍을 더듬어서 吐하게 하면 통증이 멎는다⁴⁸⁾.

<胸門-心胃痛宜下>

心痛에 脈이 堅實하고 大便을 보지 못할 때는 泄瀉시켜야 한다. 大柴胡湯을 써야 한다⁴⁹⁾.

<胸門-飲食禁忌>

心痛에는 며칠 동안 飲食을 먹지 않더라도 죽지 않는다. 만약 통증이 멎자마나 飲食을 먹으면 통증이 다시 생기니 반드시 3~5번 약

을 먹은 후 飲食을 먹어야 한다. 心痛이 있을 때는 며칠 동안 飲食을 먹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통증이 멎었다고 마음대로 飲食을 먹으면 통증이 재발한다. 병이 안정된 후 입맛대로 飲食을 먹으면 병이 반드시 재발하니 의사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⁵⁰⁾.

<內傷門-導引法>

술이나 飲食에 중독되었을 때는 바로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술에 취하거나 飽食한 기를 내쉬면 곧 배고파지고 술이 깬다⁵¹⁾.

積의 치료에 대하여 儒門事親⁵²⁾에서는 積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食積 酸心腹滿: 大黃, 牽牛 등
甚한 경우: 靑蒙石, 巴豆.

(2) 酒積 目黃, 口乾: 葛根, 麥芽

七珍散 八珍散 健胃保和元 養脾丸 八味理中丸 滋脾丸 異功散方見五藏 健脾丸 參苓壯脾元 千金養脾元.

48) 上揭書, p663 ; 心胃痛宜吐
凡心痛 皆痰粘 通用二陳湯方見痰飲 隨證加減(入門). 凡痛攻走腰背 發厥嘔吐 諸藥不效 二陳湯 加蒼朮 川芎 梔子煎服 探吐積聚 梔許乃愈(入門).

多飲塩湯 以鵝翎 探吐痰積 痛即止(醫鑑).

飲食過傷 心胸痛甚 不省人事 多飲 薑塩湯 探吐之 即止痛(雜著). 食積痰 心胃痛甚 以瓜蒂散方見吐門吐之 <又> 蘿菔子 合油炒 搗碎 和漿水濾汁 入油與蜜 各少許 旋旋 溫服吐之(丹心).

49) 上揭書, p664 ; 心胃痛宜下
心脾痛 大小便不通者 此是 痰膈中焦 氣聚下焦也(丹心).
心痛 脈堅實 不大便者 下之 宜大柴胡湯方見.

50) 上揭書, p664 ; 飲食禁忌.
心痛 雖日數多 不喫飯 不死 若痛止 便喫物即還痛 必須服藥 方可喫物(丹心).

凡心痛 數日不食無妨 痛止恣食即 復發(入門).

病安之後 若縱恣口味 病必復作 勿歸咎於醫也(丹心).

51) 上揭書, p1245 ; 導引法.
凡酒食中毒 正坐仰天 呼出酒食醉飽之氣 立飢且醒(病源).

52) 張從正 :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150~151.

- 黃蘗 등
 甚한 경우: 甘遂, 牽牛.
- (3) 氣積 噎氣 痞塞: 木香, 檳榔 등.
 甚한 경우: 枳殼, 牽牛.
- (4) 涎積 咽如拽鋸: 朱砂, 膩粉 등.
 甚한 경우: 瓜蒂, 甘遂
- (5) 痰積 涕唾稠粘: 半夏, 南星 등.
 甚한 경우: 瓜蒂, 藜蘆.
- (6) 癖積 兩脇刺痛: 三稜 廣茂 등.
 甚한 경우: 甘遂 蝎梢
- (7) 水積 足脛脹滿: 郁李仁, 商陸 등.
 甚한 경우: 甘遂, 芫花.
- (8) 血積 打撲 肋癆 產後不月:
 桃仁, 地榆
 甚한 경우: 蟲蟲, 水蛭
- (9) 肉積 (疔+贅) 瘤核癧: 膩粉, 白
 丁香, 砭刺出血
 甚한 경우: 硃砂, 信石

東醫寶鑑 單方을 좀더 살펴보면, 碧海水는 宿食을 吐하게 하고, 生熟湯은 酒毒과 과일독을 解毒하고, 桑枝茶는 消化시키고 氣를 내린다. 吳茱萸는 呑酸에, 山查子는 肉類로 인한 食積에 주로 쓰이며, 烏梅,

蘿菔(무)은 국수를 消化시키고, 蟹(게)는 胃氣를 다스리고 飲食을 消化시킨다. 牛肚(소의 밥통)와 黃雌鷄(누런 암탉)은 脾胃를 보하고, 梨(배), 甘菊花, 葛根, 竹茹, 牡蠣, 蚌蛤, 田螺(우렁이), 赤小豆花, 菘菜(배추), 瓜子(오이)는 술독에 다용한다⁵³⁾.

4) 食積의 예방

食積의 예방에 대한 내용은 東醫寶鑑의 첫 번째 목차인 身形門을 보면 잘 나와 있다.

목차 중 첫 번째에 나오는 만큼 병의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食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飽食을 금하는데 특히 저녁이나 밤에 飽食하는 것을 금하며, 늘 따뜻한 飲食을 먹어 鬻속을 따뜻하게 하고(특히 여름), 입맛에 당기는 대로 먹기보다는 담백한 飲食을 먹어야 한다. 입맛에 당기는 대로 먹기 때문에 사람은 기운이 치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만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53) 許俊 :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1., p1247~1249.

또한 脾臟導引法이나 前陰門의 導引法을 통해 鬻속의 氣를 고루 퍼트려 食積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身形門-養性禁忌>

養性書에 말하기를 攝生을 잘 하려는 사람은 하루와 한 달의 禁忌를 어기지 말고 일년 사계절에 맞춰 살아야만 한다. 하루의 禁忌는 저녁에 飽食하지 않는 것이고, 한 달의 禁忌는 그믐에 만취하지 않는 것이고, 1년의 禁忌는 겨울에 멀리 여행하지 않는 것이고, 평생의 禁忌는 밤에 불을 켜고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⁵⁴⁾.

<身形門-四時節宣>

사계절 중 여름에 조리하기 힘든 것은 陰이 속에 숨어들어 배가 차갑기 때문이다. 腎을 보하는 약이 없어서는 안 되고 차가운 飲食은 먹지 말아야 한다. 心은 성하고 腎은 쇠하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가. 精氣가 새나가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잠자리는 조용하고 깨끗하게 하고 생각은 고요히 하여 心氣를 고르게 해야 한다. 얼음물과 채소, 과일은 사람에게 좋지 않으니 가을이 되면 瘧疾, 痢疾이 생긴다.

여름은 사람의 精과 神이 모두 약해지는 계절이다. 이때는 心이 왕성하고 腎이 약해져 腎精이 녹아 물이 된다. 이것은 가을에야 응집되고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굳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욱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따뜻한 飲食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을에 癘亂으로 吐하고 泄瀉하는 憂환을 겪지 않는다. 鬻속이 늘 따뜻한 사람은 자연히 모든 질병이 생기지 않고 血氣가 왕성해진다⁵⁵⁾.

54) 上揭書, p24 ; 養性禁忌 .

《養性書》曰 善攝生者 無犯日月之忌 無失歲時之和. 須知一日之忌 暮無飽食 一月之忌 晦無大醉. 一歲之忌 冬無遠行 終身之忌 夜不燃燭行房.

55) 上揭書, p26 ; 四時節宣.

《養生書》曰 春欲晏臥早起 夏及秋 欲侵夜乃臥早起 冬欲早臥而晏起. 皆益人 雖云早起莫在雞鳴前 晏起莫在日出後.

<又>曰 冬日凍腦 春秋腦足俱凍 此聖人之常法也. 常以晦日浴 朔日沐吉 飢忌浴 飽忌沐.

凡人臥 春夏向東 秋冬向西 頭勿向北臥. 凡大風 大雨 大霧 大暑 大寒 大雪 皆須勿犯.

卒逢飄風 暴雨 震電 昏暗 皆是諸龍鬼神 行動經過所致 宜入室閉戶 燒香靜坐 以

<身形門-先賢格言>

常眞子 養生文에 말하기를 술을 많이 마시면 혈기가 어지러워지고, 飮食을 담백하게 먹으면 神과 魂이 저절로 편해진다. 저녁에 먹는 것보다 새벽에 먹는 것이 좋다. 귀가 울면 반드시 腎을 보해야 하고, 눈이 어두우면 반드시 肝을 치료해야 한다.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 脾가 저절로 튼튼해지고, 생각을 적게 하면 神이 저절로 편해진다. 땀이 날 때는 바람에 마주하여 서 있지 말고, 빈속에 차를 많이 마시면 안된다⁵⁶⁾.

丹溪의 飮食箴에 말하기를 부모가 남겨주신 사람의 귀한 몸은 飮食 때문에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의 풍조도 그렇다. 사람의 몸에는 허기와 갈증이 계속 생긴다.

避之 不爾損人.

《衛生歌》曰 四時惟夏難調攝 伏陰在內 腹冷滑 補腎湯藥不可無 食物稍冷休哺啜 心旺腎衰何所忌 特戒疎泄通精氣 寢處猶宜謹密間 默靜志慮和心氣 水漿菜果不益人 必到秋來成瘡痢.

《臞仙》曰 夏一季 是人脫精神之時 心旺腎衰 腎化爲水 至秋乃凝 及冬始堅 尤宜保惜 故夏月 不問老幼 悉喫煖物 至秋即不患霍亂吐瀉 腹中常煖者 諸疾自然不生 血氣壯盛也.

56) 上揭書, p27 ; 先賢格言.

《常眞子 養生文》曰 酒多 血氣皆亂 味薄 神魂自安 夜漱 却勝朝漱 暮飡 不若晨飡 耳鳴 直須補腎 目暗 必當治肝 節飲 自然脾健 少思 必定神安 汗出 莫當風立 腹空 莫放茶穿.

그 때문에 飮食을 해먹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입맛대로 맛있는 飮食을 지나치게 먹으니 질병이 벌떼처럼 일어나 병에 걸리는 것이다. 입맛이 당기는 대로 지나치게 먹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병이 생기게 된다. 산골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담박한 맛에 익숙하므로 음식임이 굵뜨지 않고 몸도 편안하다. 똑같은 기와 똑같은 몸을 타고 났으나 나에게만 유독 병이 많은 사실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깨닫는다면 거울에 먼지가 걸려서 맑아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술병의 주둥이처럼 입을 막아 놓고 가려먹으면 飮食을 먹어도 싫증이 나지 않을 것이다⁵⁷⁾.

<脾臟門-脾臟導引法>

다리를 펴고 앉은 후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굽힌다. 양

57) 上揭書, p27 ; 先賢格言.

《丹溪 飮食箴》曰 人身之貴 父母遺體 爲口傷身滔滔 皆是人有此身 飢渴洵興 乃作飮食 以遂其生 睠彼味者 因縱口味 五味之過 疾病蜂起 病之生也. 其機甚微 饑涎所牽 忽而不思 病之成也. 飮食俱廢 憂胎父母 醫禱百計 山野貧賤 淡薄是諳 動作不衰 此身亦安 均氣同體 我獨多病 悔悟一萌 塵開鏡淨 曰節飮食 易之象辭 養小失大 孟子所譏 口能致病 亦敗爾德 守口如瓶 服之無數.

손을 뒤로 향한 후 3~5번 끌어당긴다. 또 꿇어 앉아서 양 손으로 땅을 짚고 돌아보며 호랑이처럼 보는 것을 3~5번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脾臟의 積聚나 風邪를 제거하고 잘 먹을 수 있다.

<前陰門-導引法>

앉아서 다리를 편 후 양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는다. 발은 위로 올리고 머리는 아래로 숙이면서 힘껏 잡아당긴다. 숨을 5번 쉴만큼 하고 멈춘다. 이렇게 뱃속의 기를 끌어당겨 온몸을 돌게 하면 疝瘕病이 사라진다⁵⁸⁾.

Ⅲ. 考察

東醫寶鑑의 內傷門의 첫 목차를 보면 食藥療病, 水穀爲 養命之本, 水穀之精化陰陽行榮衛가 차례로 나온다. 즉 사람의 생명을 기르는 것도 飲食이며, 이 飲食이 잘못되어 병도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食積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狹義의 食積은 급히 飲食에 체한 것 즉 食傷證을 말하며, 이럴 때는 급히 吐하게 하거나 消導之劑를 써야 한다. 廣義의 食積은 氣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에 정체된 체액을 말하는데 체액은 모두 飲食으로부터 만들어지므로 결국 모두 食積으로 볼 수 있다.

食積은 만병의 근원으로 食痰, 食積泄, 食積痢, 食積胃脘痛, 食積腹痛 등 소화기 관련 증상 뿐만 아니라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등으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食積嗽, 胃咳, 脾咳 등이 있고, 순환기 증상으로는 심장과 관련하여 胃心痛, 積心痛이 있으며, 생식기 관련해서는 여자의 경우 癥瘕, 痰癖 등의 자궁, 난소 질환이 있고, 남자의 경우 疝症, 음낭질환 등이 있다.

腰脇部로 증상이 옮겨지면 食積脇痛, 食積腰痛 등의 통증질환이 발생되고, 오관으로 증상이 발현되면 鼻痔 등도 생긴다.

특히 식적 요통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10종 요통 증식적, 습열 요통의 증례보고’⁵⁹⁾에

58) 上揭書, p840 ; 導引法.
坐舒兩脚 以兩手提大拇指 使足上 頭下 極挽五息止 引腹中氣遍行身體 去疝瘕病 (類聚).

59) 성수민, 박민제, 김정욱, 황민섭, 윤종

따르면 임상적으로 心窩部 壓痛 (100%), 痞悶感(63.6%)등 소화기계 증상을 동반하였고, 신체적 검진 상 요추 굴곡 및 신전각의 감소(100%)가 현저하였으며, 모든 예에서 Algometer를 이용한 근육 압통 검사상 장요근 압통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요통 환자 중 요추 굴곡, 신전각의 감소, 장요근의 압통, 소화기 관련 증상을 수반할 경우 식적 요통으로 보고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小兒門을 보면 小兒 질병의 대부분은 食積이 원인이며, 이에 따라 치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食積의 위치는 양 옆구리와 中脘인 경우가 많은데, 옆구리는 대횡혈에 가까우며 小兒 치료에 대횡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肝脾不和와 食積으로 변증된 신경성 폭식증 치험 1례’⁶⁰⁾를 보면 현대 사회에 많은 정신과 질환 중 일부는 食積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食積의 치료는 飲食을 줄이고, 消導之劑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虛할 경우에는 脾를 보해야 하는데 火生土를 위해 心經의 약을 같이 쓴다. 처방으로는 痰을 삭이고 脾를 보하기 위한 二陣湯이나 泄瀉시키는 大柴胡湯이 다용된다.

크게 消導之劑와 補益之劑로 구분하여 약을 쓰는데, 消導之劑로는 二陣湯, 平胃散, 지출환이 다용되며, 補益之劑로는 氣를 보하는 四君子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과 參朮健脾湯, 八味理中丸 異功散이 다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消導之劑로 주로 사용된 한약재는 白朮, 枳實, 蒼朮, 厚朴, 陳皮, 半夏, 藿香, 砂仁, 三稜, 蓬朮, 山查, 神麩 등이며, 補益之劑로 사용된 한약재는 白朮, 茯苓, 人蔘, 乾薑, 肉桂 등이다.

食積治療에 사용된 單方은 식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生熟湯과 桑枝茶는 식후에 주로 마실 수 있는데, 桑枝茶는 下氣 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吞酸증상에는 吳茱萸, 肉類를 과식했을 때는 山查子, 국수를 먹을 때는 무를 곁들이고 매실차를 마신다. 脾胃를 보할 때는 계, 소의 밥통, 누런 암탉이 좋다. 酒毒에는

화 : 10종 腰痛 중 食積, 濕熱 腰痛의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5. Vol.22. No.04.
60) 김효주 외 7명 : 肝脾不和와 食積으로 변증된 신경성 폭식증 치험 1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8. Vol.19, No.3.

梨(배), 甘菊花, 葛根, 竹茹, 牡蠣, 蚌蛤, 田螺(우렁이), 赤小豆花, 菘菜(배추), 瓜子(오이)가 좋으므로 함께 먹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內傷門의 導引法을 보면 술이나 飲食에 중독되었을 때는 뒤로 젖히는 동작을 통해 氣血순환을 원활히 하며 심호흡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食積의 예방에 대한 내용은 東醫寶鑑의 첫 번째 목차인 身形門을 보면 잘 나와 있다.

목차 중 첫 번째에 나오는 만큼 병의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食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禁飽食하는데 특히 저녁이나 밤에 飽食하는 것을 禁하며, 溫服(특히 여름)하고, 입맛에 당기는 대로 먹기 보다는 담백한 飲食을 먹어야 한다. 입맛에 당기는 대로 먹기 때문에 사람은 기운이 치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만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脾臟導引法이나 前陰門의 導引法을 통해 뱃속의 기를 고무 퍼트리 食積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IV. 結 論

1. 積聚의 개념은 內經 전에 있었으며, 食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內經 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類經에서는 飲食起居의 不節로 인해 腸外의 체액과 血이 합쳐져 食積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2. 食積이란 狹義의 의미로 食傷證을 말하며, 廣義의 의미로 체내에 정체된 부적절한 체액을 말한다.
3. 東醫寶鑑을 통해 食積을 고찰해보면
 - 1) 食積의 위치는 左右 기준으로는 주로 右側, 上下 기준으로는 上腹部, 深淺 기준으로는 피부와 근막사이이다.
 - 2) 食積의 원인은 飽食과 水穀 寒熱의 치우침, 脾胃 虛弱 등이다.
 - 3) 食積의 증상은 噯氣, 吞酸, 惡心, 腹痛, 頭痛, 發熱 등 매우 다양하다. 맥상은 右側 맥(氣口脈)이 緊盛하다.
 - 4) 食積은 만병의 근원으로 소화기뿐만 아니라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등과 관련하여도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현대적으로 여성 자궁난소 질환이나 요통의 원인으로 食積이 많다.
- 5) 小兒질환의 대부분은 食積이다.
- 6) 食積의 치료는 少食하게 하고, 심

하면 吐法, 下法을 쓴다. 약은 消導之劑와 補益之劑를 주로 쓴다.
7) 食積의 예방법으로 禁飽食, 溫服, 脾臟導引法, 前陰門 導引法이 있다.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8. Vol.19, No.3.
12) 張從正 :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150~151.

V. 參考文獻

- 1)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320.
- 2) 扁雀 著 滑壽 注 : 難經本意,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 p.492.
- 3) 李培生 主編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27, p.124.
- 4)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11. p.178 ; 雜病篇 卷之五-八.
- 5) 김달호(編釋) :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1173~1174.
- 6) 張介賓 :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458.
- 7) 李中梓 : 醫宗必讀, 서울, 文光圖書公司, 1976. pp.260~261.
- 8) 許俊 :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1.
- 9) 양수열, 이경섭, 송병기 : 癥瘕의 東西醫學的 高찰, 대한한의학회지, 1984. Vol.7, No.1.
- 10) 성수민, 박민제, 김정욱, 황민섭, 윤중화 : 10종 요통 중 食積, 濕熱腰痛의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5. Vol.22, No.04.
- 11) 김효주 외 7인 : 肝脾不和와 食積으로 변증된 신경성 폭식증 치험 1례,